

# 김현승과 릴케

김재혁 \*

- I. 들어가는 말
- II. 고독과 예술가
  - 1. 비교를 위한 전제 : 기독교의 신과 시인
  - 2. 기도와 고독 : 詩的 眞實을 찾아서
  - 3. 신비주의적 고독에서 절대 고독으로
- III. 맺는 말

## I. 들어가는 말

릴케(1875-1926)가 우리나라 시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한 가지 관점에서 말하기 어렵다. 시대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 따라 호오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릴케의 수용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면, 릴케의 작품 중 우리 시인들이 어느 것에 관심을 보였느냐에 따라 수용 양상을 구별하는 것이 수용의 방향과 깊이를 가늠하는 데에 가장 유효할 것으로 여겨진다. 릴케에게서 영향을 받은 시인들의 시를 분석할 때 릴케의 수많은 텍스트 중에서 특정한 시나 산문작품이 거듭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릴케 수용의 방향과 폭을 알려주는 사실이기 때문이

---

\*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다. 이것은 일본어나 한국어 번역판의 존재나 시인 각자의 기질 또는 시대적 상황이나 유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릴케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애호된 것은 주로 초기 작품들이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께 드리는 소녀들의 기도」가 가장 압도적이다. 이 작품의 영향은 특히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 시인들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이 작품이 1930년대 후반에 박용철에 의해 번역되고, 또 그 이전에 일본어판 릴케 시집에서도 많이 등장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상에 갓 나온 듯한 애잔한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릴케의 시 세계를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박용철, 운동주, 전봉건, 박희진 등이 여기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소녀가 바깥세상을 향해 뭔가 갈구하는 자세는 이들에게 나름의 기도의 내용을 이와 같은 소녀의 문체를 빌어 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른 암울한 심정의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시적 행로에 대한 기원일 수도 있다. 대체로 후자의 경향을 이들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 한국동란은 전봉건과 박양균의 시에서 릴케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로서의 릴케이다. 이런 면은 초기의 김춘수의 시에서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인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릴케의 시는 『형상시집』에 실려 있는 시 「가을날」이다. 기도체의 어법이 여기서도 수용의 주된 대상이 되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적 테마의 수용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독이다. 이 영향을 누구보다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준 시인은 김현승(1913-1975)이다. 그러나 김현승은 릴케의 작품 세계보다는 시인으로서의 릴케의 자세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김현승의 고백은 그 자신의 시를 평가할 때에도 하나의 잣대로 쓰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절대고독”이라든가 “견고한 고독”의 세계를 릴케가 추구했던 예술가적 종교성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가 시에서 “마음”이라는 낱말을 즐겨 사용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 그의 시어 역시 기도체가 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진 절망적 표현이 되기도 하며 구원의 빛을 보이기도 한다.

## II. 고독과 예술가

### 1. 비교를 위한 전제 : 기독교의 신과 시인

릴케의 세계관에서 고독은 삶의 에토스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적 테마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고독의 스펙트럼은 다채롭게 전개된다. 그의 고독은 외부세계의 억압에 의한 어린 시절의 부정적 소외를 거쳐, 청소년기의 감상적 고독, 그리고 신과의 합일을 노래한 신비주의적 고독을 경유하여 신과의 단절을 지나 창조적 고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sup>1)</sup>

고독을 자신의 문학적 주제의 커다란 줄기로 삼은 점에서 김현승의 문학은 릴케의 문학 세계와 여러 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된다. 릴케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서 김현승은 다음 같이 말한다.

나는 또 많이는 읽지 않았으나 릴케도 좋아한다. 릴케에게서 취할 점은 진실성이다. 왜 그런지 그는 어느 시인보다도 추구의 진실성을 풍겨 주고 있다. 시의 궁극이 진실에 있다면 릴케야말로 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시인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김현승은 시인으로서의 릴케의 소명 의식과 인생 역정에 각별한 관심

1) Vgl. H. Kießling : Die Einsamkeit als lyrisches Motiv bei Rainer Maria Rilke, Diss. Jena 1935. S. 27ff.

2) 김현승, 「詩였던 예수의 言行」.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산문. 서울 1985. S. 297.

을 보인 것 같다. 그는 시인으로서 릴케가 보여준 삶의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릴케의 삶의 태도란 『기도시집』에서 잘 드러나듯이 예술을 거의 종교의 단계로까지 떠받드는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이다.

고독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 릴케와 김현승의 비교는 기독교에 대한 두 시인의 태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김현승은 릴케로부터 받은 영향을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은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취해왔다고 밝히고 있다.<sup>3)</sup> 모태신앙적으로 기독교에 경도되어 있던 김현승의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한 말이다. 이 말은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책이 두 가지인데, 그 중 하나는 덴마크의 작가 야콥슨의 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경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4)</sup>

고독을 신앙과 연결시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김현승의 고독은 서로 다른 의미를 품는다. 다시 말해 고독이 영원성으로 가는 심적 상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앙적 관점이고, 그의 고독을 神에 대한 懷疑와 절망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인간주의적 관점이다.<sup>5)</sup> 초창기에 경건한 기독교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시를 주로 쓰던 김현승은 196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의 문학의 주된 테마가 된 것은 고독이다. 물론 그의 문학에서는 신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고독이 하나의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었다.

초기의 김현승의 문학은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신을 찾아가는 도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이 그에겐 곧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자아의

3) Vgl. 김현승, 「詩였던 예수의 言行」,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297f.

4) Vgl. R. M. Rilke : Briefe an einen jungen Dichter, 39 Aufl, Frankfurt a. M, 1991, S. 13.

5) Vgl. 조태일, 「김현승 시정신 연구」, 서울 1998, S. 11f.

발견을 의미한다. 이때 김현승의 가슴속에 자리 잡은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자연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에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고, 주관에 의하여 변형시키기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는 나는 동양적이 아니고 서구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기독교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性善說에 입각한 생활이 아니고 原罪說에 뿌리박은 생활임을 나 자신이 언제나 인식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60년대의 김현승에게는 기독교가 회의적으로 다가온다. 어릴 때부터 맹목적으로 믿어온 기독교에 대해 회의가 든 까닭은 그가 「나의 문학 백서」라는 글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에 대한 불신과,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이었다.<sup>7)</sup> 1964년에 발표된 시 「題目」은 김현승의 정신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시인의 세계관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내적 갈등을 그는 “떠날 것인가/남을 것인가//나아가 和睦할 것인가/쫓김을 당할 것인가”<sup>8)</sup>라고 표현한다. 이 구절에 신이라는 말을 넣으면 문맥은 보다 명확해진다. 즉 “(신으로부터) 떠날 것인가/(신 곁에) 남을 것인가”라는 뜻으로 읽힌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해결점은 시인 자신의 결단과 의지 쪽으로 수렴된다. 신의 품에서 떠난 김현승의 고독은 자기 존재의 확립 과정이다.

1960년대에 이르러 나는 내게 있어 가장 절실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간에 대한 해답과 그 본질적인 해답을 위한 추구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나의 시에 있어 ‘고독’을 추구하고

6) 김현승, 「나의 文學白書」, 『월간문학』, 1970, 9(통권 23호), S.187.

7) Vgl. 김현승, 「나의 문학백서」,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274f.

8) 김현승, 『김현승 전집1』, 시, 서울 1985, S. 165.

표현하게 되었다.<sup>9)</sup>

이때부터 고독의 테마는 그의 시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두 권의 시집 『견고한 고독』(1968)과 『절대 고독』(1970)이다. 김현승 자신은 고독을 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의 고독은 보다 근원적인 데서 오고 있다. 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sup>10)</sup>라고 확정적으로 말한다.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분리의 의미로서의 고독은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유의 추구를 뜻한다. 김현승은 “모든 붕괴는 결국 새로운 나 자신을 탄생시켰다”<sup>11)</sup>고 고백한다.

기독교에 대한 懷疑 과정은 이미 새로운 自我의 탄생을 꿈꾸던 릴케의 초기 일기에서도 뚜렷이 표출된다. 릴케 역시 김현승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의 뜻에 따라 믿었던 기독교로부터의 탈출을 희구한다.

모든 사람은 喪服을 입고 저마다 어린 시절의 신의 임종의 침대로부터 떠나간다. 확신에 차서 당당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갈 때, 모두의 내면에서 신의 부활이 이루어지리라.<sup>12)</sup>

릴케는 신으로 대변되는 기존 세계로부터의 탈피를 염원한다. “어린 시절의 신의 임종의 침대”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릴케가 모든 종교적 권위로부터 해방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릴케와 김현승은 모두 신을 잃어버렸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부재가 고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서 발판이 된다.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곧 고독

9) 김현승, 「쓴다는 것의 의미」,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214..

10) 김현승, 「커피를 끓이면서」,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366.

11) 김현승, 「왜 쓰는가」, In : 『지성』, 1972년 2월호, S. 176.

12) R. M. Rilke : Briefe und Tagebücher aus der Frühzeit, 1899-1902, Leipzig 1931, S. 47. 이하 TF로 약칭함.

에의 의지인 것이다.

## 2. 기도와 고독: 詩的 眞實을 찾아서

김현승의 초기의 고독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에게 있어서 기도와 고독, 그리고 가을의 상관성을 고찰해야 한다. 이 시기의 고독에 대한 고찰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한 그의 “절대고독”이라든가 “견고한 고독”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릴케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말테의 수기』에서 말테는 밤새 기도한 것이 다음 날 아침이면 한 뭉치 글로 남는다고 말한다: “내가 밤마다 기도한 것들이 여기 나의 육필로 씩어져 있다.”<sup>13)</sup> 말테는 기도를 말로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서 글로 쓴다. 이것은 기도와 글쓰기의 동일시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기도는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온 시적 진리의 소리이며, 바로 이 소리를 듣기 위해 그는 실제로 종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다. 한 여성에게 쓴 편지에서 릴케는 기도를 다음 같이 정의한다.

기도란 갑자기 불타오르는 우리의 본질의 발산입니다. 기도란 도달점이 없는 끝없는 방향이며, 어디에 가셔도 멈추는 일이 없이 우주를 꿰뚫는 우리들의 동경의 불타는 평행선이죠.<sup>14)</sup>

여기서 릴케는 기도를 강력한 어조로 옹호하고 있다. 그는 기도란 본질의 발산이며 도달점 없는 끝없는 방향, 예술적 형상화를 위한 동경의 불

13) Rainer Maria Rilke : Sämtliche Werke, Hrsg. v. Rilke-Archiv in Verbindung mit Ruth Sieber-Rilke, besorgt durch Ernst Zinn, Frankfurt a. M. 1955-1966. 이하 SW으로 칭하기로 함. SW6, 756. 앞의 숫자는 권수를, 뒤의 숫자는 쪽수를 나타냄.

14) R. M. Rilke : Briefe, 1 Band, Hrsg. Rilke-Archiv in Weimar, In Verbindung mit Ruth Sieber-Rilke, besorgt durch Karl Altheim, Wiesbaden 1950. S. 257.

타는 평행선이라고 정의한다. 기도에는 예술적 상상력이 개입되며, 예술가 자신이 창조를 향해 불타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릴케의 기도는 종교 용어를 빌린 예술가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다른 말임이 드러난다.

김현승의 경우 기도는 계절적으로 주로 가을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김현승은 “임금(林檎)나무 수풀의 열매들이 익으면 머언 하늘빛 벵타이를 매고 릴케의 시집을 뒤적거리던 그 시간은 가을이었다”<sup>15)</sup>고 회상한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을에는 가장 깊은 시를 얻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일생 동안 가을의 외로움이나 슬픔을 모르고 살아왔다. 외로움이 있는 곳엔 가을마다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리듬을 붙이면 시가 되었다.<sup>16)</sup>

릴케와 마찬가지로 김현승에게도 기도는 곧 시 쓰기이다. 기도는 초월적 존재와의 교류의 한 방편이다. 이 초월적 존재를 향한 시인의 동경이 곧 시를 낳는 것이다. 시 쓰기의 전제는 물론 고독이다. 김현승에게 있어서 고독은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를 점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색과 성찰의 발로이다. 시 「가을의 기도」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시인으로서의 김현승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가을에는  
 祈禱하게 하소서 ……  
 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謙虛한 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15) 김현승, 「가을의 사색」.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340.

16) 김현승, 「초가을」.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415.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肥沃한  
 時間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울로 있게 하소서 ……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百畝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sup>17)</sup>

이 시에는 러시아의 수도원에서 성화를 그리는 종교화가로서 신을 향해 기도하는 릴케의 『기도시집』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sup>18)</sup>로 시작되는 「가을날」과, 가을의 凋落과 신의 庇護를 노래한 「가을」의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시에 담긴 기도와 고독과 겸허의 정서가 그것을 말해준다. 김현승의 작품 중에서 가을을 소재로 한 시는 자연의 사계를 노래한 시편들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sup>19)</sup> 그의 가을은 거의 대부분 신을 향한 호소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 가을은 홀로 앉아 기도하며 시를 쓰는 시간이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낙엽과 함께 사라진다 해도 기도를 통해 그리고 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겠다는 말이다.

시인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넘어, 즉 인생의 격랑과 순수를 동경하여 방랑하는 현세를 겪으며 결국엔 “마른 나뭇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운 상태에

17) 김현승, 『김현승 전집1』, S. 105.

18) SW1, 398.

19) Vgl. 조태일 : a.a.O., S. 62.

서, 즉 릴케가 『기도시집』에서 노래한 “가난”의 의미로, 김현승이 노래하고자 하는 대상은 “오직 한 사람” 뿐이다. 그가 마음속에 간직하여 “母國語”로 노래하고자 하는 존재는 바로 그의 삶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절대자이다. 그에겐 시 쓰기가 곧 자신만의 “비옥한 시간”을 가꾸는 일이다. 그 결과로 탄생하는 시작품은 그의 인생의 한 획을 그으며 흔적을 남겨주는 “열매”와 같다. 이를 통해 그는 성숙의 길을 가게 된다. 그는 이것을 절대자를 향해 호소한다. “가을에는/호올로 있게 하소서”라고. 신을 노래하고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독이 필요하다. 그는 고독 속에서 신과의 진실한 교통을 갈구한다. 그러기에 그는 “까마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김현승은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빛깔 없고 거친 목소리의 새를 나는 다른 새들보다도 유난히 좋아하였다. 다른 새들은 육체의 즐거움에 속한 새라면 나의 고향 남쪽 겨울에 그렇게도 많던 까마귀들은 어딘가 영혼과 슬픔과 괴로움에 속하는 새들인 것 같다. 형벌을 검은 몸뚱이에 이고 가는 듯한 그 울음소리 ……20)

김현승은 일부러 부정적인 이미지의 “까마귀”를 자신의 시어로 선택하고 있다. 보통 우리의 습속에 따라 까치라면 길조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겠지만 “까마귀”는 그 검은빛과 음울한 울음소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부터 배척을 받아 “형벌을 검은 몸뚱이에 이고 가는” 외로운 존재이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반경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쫓아버린다. 릴케가 「문둥이의 노래」에서 그린 문둥이의 딸랑이도 이와 같다. 딸랑이는 문둥이의 근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에게 고독의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준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편안하다. 딸랑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만큼 고독의 공간은 넓어진다. 시인은 문둥

20) 김현승, 「겨울방학」,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420.

이처럼 자기만의 고독을 간직한 채 또 다시 다른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 날아가는 “까마귀” 같은 존재인 것이다. “마른”이라는 부가어가 표현해주듯이 그는 모든 욕망의 물기가 싹 빠진 상태를 원한다.

초월적 존재를 향한 김현승의 소망은 외양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와 심도를 지닌 것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다. 시인은 풍요와 결실이 지난 뒤의 위대한 空虛를 노래한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이 곧 그의 시가 지키고 있는 자리이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보통의 가치에서 하찮은 것들로 여겨지는 존재들이다. 마른 나뭇가지, 까마귀가 그것들이다.

김현승의 「가을의 기도」의 이러한 측면은 릴케의 「가을날」이라든가 「가을」 같은 시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을의 조락의 분위기 속에서 나뭇잎으로 형상화된 인간의 구원의 모습은 「가을」의 “하지만 이 떨어 짐을 한없이 부드럽게/두 손으로 받아주는 어느 한 분이 있다”<sup>21)</sup>라는 구절이 알려주고, 가을의 고독 속에서 내적 성숙을 기원하는 자세는 「가을날」의 마지막 연에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김현승은 릴케의 이 시에 대해서 “이 시는 내가 가을의 시로는 물론 모든 종류의 시를 향하여서도 지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하나”<sup>22)</sup>라고 고백하고 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 남아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훑날리는 날에는 가로수들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sup>23)</sup>

고독을 즐기고 방랑하면서 시를 쓰는 시인에게 있어서 고독은 결코 불

21) SW1, 400.

22) 김현승, 「가을에 생각나는 시들」,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441.

23) SW1, 398.

행과 재앙이 아니다. 고독함으로써 시를 쓰고 또 시를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독은 자족적인 자아의 표지이다. 그의 고독은 사회로부터의 소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홀로 있음을 적극적으로 누리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그래서 김현승은 이 시와 관련해서 릴케를 평하여 “릴케는 그의 시의 특질로서 파탄을 이룬 현대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독일의 전통을 고수하는 이상적 경향의 제일인자적인 시인이며 새로운 생명의 강렬한 추구욕이 내면에 樹液과 같이 흐르고 있는 시인”<sup>24)</sup>이라고 단언한다. 김현승이 릴케를 보는 시각이 단언적으로 표현된 구절이다. 그는 릴케에게서 현대의 시대적 아픔을 치유해줄 구원자의 모습을 읽고 있다. 릴케와 김현승의 시에서는 새로운 生命과 詩的 眞實을 찾아 나선 구도자의 모습이 엿보인다. 직접적으로 김현승은 스스로 “나의 생애에서 시를 쓸 때만큼 이와 같이 성실하려고, 이와 같이 생명에 집중하려고, 이와 같이 참되려고, 이와 같이 思無邪하려고 몸부림 친 적은 다른 모든 일에서는 일찍이 없었다.”<sup>25)</sup>고 술회한다. 릴케의 「가을날」의 마지막 연과 흡사한 사고과정을 보여주는 「가을이 오는 시간」의 마지막 연에서 우리는 릴케에 대한 그의 관심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의 마음들은 벌써 落葉이 진다.  
 우리의 마음은 남긴 것 없음을  
 이제는 서러워한다.  
 지금은 먼 길을 예비할 때 -  
 집 없는 사람들 돌아와 집을 세우는,  
 지금은 릴케의 詩와 自身에  
 입 맞추는 시간 ……<sup>26)</sup>

24) 김현승, 「가을에 생각나는 시들」,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442.

25) 김현승, 『김현승 시전집』 “서문”, 서울 1974.

26) 김현승, 『김현승 전집1』, S. 103.

시인의 “마음”은 가을을 맞이한 나무처럼 가을이 주는 무상의 분위기에 젖어 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지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인식 하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 시인은 “릴케의 詩와 自身에” 입을 맞추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김현승의 가을의 이미지는 한편으로 모든 지상적인 것들의 사라짐을 나타내는 이미지들과 다른 한편으로 신적인 것의 지향을 나타내는 근원회귀, 공간적 무한의 이미지들을 보여준다.<sup>27)</sup> 김현승의 고독은 신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것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실현으로서의 고독, 즉 이 시기의 김현승에게 있어서 고독은 기독교적인 자기 각성의 과정에 다름 아니다.<sup>28)</sup>

### 3. 신비주의적 고독에서 절대 고독으로

릴케와 김현승의 경우 초기의 작품 세계에서는 이처럼 신비주의적 고독의 감정이 주류를 형성한다. 릴케는 『기도시집』의 다음 작품에서 신을 위한 고독에 대해 다음 같이 노래한다.

단 한번만이라도 아주 조용해진다면,  
우연한 것, 하찮은 것  
그리고 이웃의 웃음소리가 침묵한다면,  
나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나의 覺醒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 수 천 번의 思索으로  
당신의 자락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생각하고

27) Vgl. 광광수, 「김현승의 고독」, In : 승실어문학회(편), 『다형 김현승 연구』, 서울 1996, S. 71-87, S. 74.

28) Vgl. 김현/김윤식, 『한국문학사』, 서울 1982, S. 279.

(미소 짓는 순간 만큼만이라도) 당신을 소유할 수 있으려면.

감사의 표시처럼

당신을 모든 생명에 선사할 수 있도록.<sup>29)</sup>

시적 자아는 신에게 접근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변세계가 침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릴케에게 있어서 “웃음소리”는 시적 화자를 신으로부터 떼어내 자신들의 권내로 끌어들이려는 모든 적대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암호이다. 웃음은 신을 향한 고독을 깨뜨리는 요소를 표현하는 총체개념이다. 시인 자신의 “감각”마저도 신을 인식하려는 “각성”을 깨뜨리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신과 가장 가깝게 느끼는 순수하고 고독한 영혼만이 남게 되어야 한다. 모든 생명에 신을 선사하겠다는 말처럼 예술적 창조를 위해서는 “낮선 것”, “우연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은둔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여 순수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독은 신과의 합일을 위한 전제이다. 고독은 모든 비본질적이고 일시적인 것과의 단절을 추구한다. 김현승이 초기에 추구했던 고독과 유사하다.

그러나 김현승이 1970년에 발표한 시 「고독의 끝」은 「가을의 기도」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거기서  
나는  
웃을 벗는다.

모든 황혼이 다시는  
나를 물들이지 않는  
곳에서.

---

29) SW1, 256.

나는 끝나면서  
나의 처음까지도 알게 된다.

神은 무한히 넘치어  
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  
나는 너무 잘아서  
神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

무덤에 잠깐 들렀다가,

내게 숨막혀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으로 떠나면서 떠나면서,

내가 할 일은  
거기서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다.<sup>30)</sup>

김현승의 「고독의 끝」은 얼핏 릴케의 『기도시집』의 영향을 보여준다. “神은 무한히 넘치어/내 작은 눈에는 들일 수 없고,/나는 너무 잘아서/神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는 구절이 그것인데, 『기도시집』중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기에/당신 근처에만 가도 이미 나는 보잘것없습니다./당신은 그렇듯 어둡기에/당신의 자락에 비치는 나의 작은 빛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sup>31)</sup>를 어법상으로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하다. 시인은 신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왜소함을 느낀다. 그러나 김현승은 릴케 식의 신비주의적 목소리를 빌렸을 뿐 그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릴케와는 사뭇 다르다. 그것은 “나는 너무 잘아서/신의 눈엔 끝내 보이지 않았다”는 구절이 잘 알려준다. 그는 이제 자신이 찾던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표출하는

---

30) 김현승, 『김현승 전집1』, S. 225.

31) SW1, 269.

것이다.

김현승은 “바람도 따르지 않는/곳으로 떠나면서 떠나면서” 진정한 고독을 찾아 나선다. 그는 “황혼”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속세의 화려한 모든 것을 떠나 無色 無臭의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 고독은 그의 고향이다. 그는 고향을 찾아 끊임없이 방랑하는 고독한 존재이다. 고독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 “무덤”은 이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는 이승에서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세속의 모든 것이 사라진 공간을 뜻한다. “무덤”은 현실적 삶이 포기된 상태에 대한 간결한 은유이다. 따라서 고독은 김현승에게 거의 죽음으로까지 비친다.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버린 상태, 이른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은 죽음<sup>32)</sup>의 상태이다. “바람도 따르지 않는 곳”은 곧 “황야”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독의 공간이다. 죽어서 들르는 안식처인 “무덤”에서마저 떠난 곳은 극단적인 체험의 공간이다. 시인은 전래된 의식(儀式)을 거부한다. 마음이 “황야”와 같음은 고독 속에 칩거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은 동시에 신에 대한 회의(懷疑)의 공간이다. 원래 마음은 많은 것이 와서 깃들이는 장소인데, 신을 회의하는 인간은 고독의 공간 속에 허망하게 자리할 수밖에 없다. 이때 마음은 인식의 기관이 된다. 본디 릴케의 시에서도 마음은 종교적 활동 기관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릴케는 “내 마음이 불타오르면/(...) 신은 그곳에서 창조를 한다.”<sup>33)</sup>고 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현승의 시에서 나타나는 외부 공간은 모두 시인의 내면 공간의 외적 표상으로 볼 수 있다.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리는 행위는 마음을 극단적으로 정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정확의 끝 마당에 시인이 바라는 가장 순수한 상태가 있다.

“영혼의 옷”을 벗는 것은 곧 모든 믿음까지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

32) Vgl. H. Imhof : Rilkes Gott, Heidelberg 1983, S. 225.

33) SW1, 200.



의 고독은 구원에 이르는 고독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포기하는 고독이다. 이른바 순수한 고독 그 자체일 뿐이다.<sup>34)</sup> 고독은 현실로부터의 무책임한 도피가 아니라 극단의 고독의 경험을 통해서 보다 강해진 모습으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계기이다. 심도 깊은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다. “나는 끝나면서/나의 처음까지도 알게 된다”고 시인은 자신의 실존적 변용 과정을 말한다. 고독을 통해 “나”는 부정적 존재 양상으로부터 긍정적인 양상으로의 존재의 轉移를 경험한다. 육체를 버린 뒤에 남은 “영혼의 옷마저 벗어” 버린 “나”는 홀로 서며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해서 그는 현상적인 것으로부터 본질적인 것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고독은 순수 인간주의적 고독으로 나아간다. 그는 고독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인간의 삶이나 사물의 본질을 고독에서 찾고, 이 고독을 인식하게 될 때, 사물의 정체를 현실로, 또는 시의 세계로 소화시켜 나가는 것이다.<sup>35)</sup>

같은 관점에서 릴케는 초기의 한 일기에 다음 같이 적고 있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는 많은 것이 내 몸에 붙어 있다. 그래도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낯선 것, 우연한 것들이라 생각한다. 그런 까닭에 내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힘이 솟는다. 언젠가 내가 완전히 나의 고유의 옷을 입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먼저 옷을 벗은 알몸이 되련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찾을 수 있리라.<sup>36)</sup>

여기서 발가벗는다는 말은 곧 모든 것을 버린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려버리는 관습의 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34) Vgl. 김현승, 「나의 고독과 나의 시」. In :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서울 1984, S. 183.

35) 이성부, 「사랑의 실제」, 『창작과 비평』, 1976년 봄호, S. 251.

36) TF, 133f.

서는 이처럼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 단계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고유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현승은 자신이 견지하는 고독의 의미를 다음 같이 정리한다.

고독 속에 파묻히는 것은 감상이나 위축이 아니다. 고독을 추구하는 것은 허무의식과도 그 색채가 다르다. 고독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도 가장 즐거운 시예술의 활동이며 윤리적 차원에서는 참되고 굳세고자 함이 된다. 고독 속에서 나의 참된 본질을 알게 되고 나를 거쳐 인간 일반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의 사회적 임무까지도 깨달아 알게 되므로.<sup>37)</sup>

릴케가 『기도시집』의 시 「단 한번만이라도 아주 조용해진다면」에서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신과의 교통을 간구하고, 또 이를 통해 창조적 열정에 파묻히기를 바랐다면, 이것은 김현승이 말한 “고독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도 가장 즐거운 시예술의 활동”이라는 말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릴케가 접하려는 신 역시 궁극적으로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자신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존재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릴케나 김현승이나 고독에의 침잠을 통하여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 또는 인간 본질의 탐구이며 “정신의 高地를 점유하여 인생에 대한 시야를 가없는 영원에까지”<sup>38)</sup> 넓히기 위한 것이다. 신이 떠난 마음의 자리를 고독으로 메꾸어 거기에 영원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김현승에게 있어서 시 쓰기는 구원의 한 방편이 된다.

시만큼 인생을 조금씩이라도 깨닫게 하여주는 가치 있는 활동은 일찍이 없었다. 나에게 있어서 시는 줄곧 유희가 아니었다. 시는 나에게

37) 김현승, 시집 『절대고독』의 “자서”, 서울 1970.

38) 김현승, 「커피를 끓이면서」,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365.

있어 구원이었다.<sup>39)</sup>

김현승은 시 「절대고독」에서 진정한 고독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원하여 보여준다.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이 체온으로 나는 내게서 끝나는  
나의 영원을 외로이 내 가슴에 품어 준다.

그리고 꿈으로 고이 안을 받친  
내 언어의 날개들을  
내 손끝에서 이제는 티끌처럼 날려 보내고 만다.

나는 내게서 끝나는  
아름다운 영원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나의 손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 나의 詩와 함께.<sup>40)</sup>

39) 김현승, 「회갑유감」. In : 김현승, 『김현승 전집2』, S. 389.

40) 김현승, 『김현승 전집1』, S. 224.

이 시는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는 도발적인 진술로 시작된다.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는 말은 결국 절대 고독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시인이 온갖 갈등과 불안, 회의와 같은 인간적 체험을 통해 다다른 상태이다. “영원”을 대변하는 신이 사라져버린, 아니 신을 부정하여 생긴 거의 진공 상태와 같은 고독 속에서 시인은 “오랜 잠”에서 깨어나 “영원의 끝”을 느낀다. 시인은 “절대고독”이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손끝”으로 만진다고 말한다. 또한 “영원”을 구체적으로 가시화하여 보여주기 위해 “영원의 별”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한다. 감각 중에서도 촉각과 시각이 주로 동원된다. 이때 그가 고독을 대하는 태도는 차가운 쪽에서 따스한 쪽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고독을 따스하게 대함으로써 이른바 소외나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고독의 개념이 긍정적인 쪽으로 변용된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그의 고독은 다다른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간 지점에서 시인은 “절대고독”을 느끼고 영원과 무한을 향해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이 같은 영원과 무한도 사실 시인의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한다. 그는 “절대고독”의 경지에서 언어로 써는 불가능한 침묵의 세계를 역설적이게도 다시 언어를 통해 구현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이 김현승에게 있어서 마음속의 풍경이 “언어”로 전환되는 접점이다.

김현승의 시 「견고한 고독」에서 “견고한 고독”이라는 말은 마치 고독이 성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단단한 뉘앙스를 주는 한글 자음인 “ㄱ”이 세 번에 걸쳐 겹쳐 쓰임으로써 난공불락의 느낌마저 들게 한다.

꺾질을 더 벗길 수도 없이  
단단하게 마른

흰 얼굴.

그늘에 빛지지 않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는  
단 하나의 손발.

모든 神들의 거대한 正義 앞엔  
이 가느다란 창끝으로 거슬리고,  
생각하던 사람들 굶주려 돌아오면  
이 마른 떡을 하룻밤  
네 살과 같이 떼어주며,

結晶된 빛의 눈물,  
그 이슬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  
堅固한 칼날 - 발 딛지 않는  
피와 살.

뜨거운 햇빛 오랜 시간의 회유에도  
더 휘지 않는  
마를 대로 마른 木管樂器의 가을  
그 높은 언덕에 떨어지는,  
굳은 열매

쌉쓸한 慈養  
에 스며드는  
에 스며드는  
네 생명의 마지막 남은 맛!<sup>41)</sup>

시인의 얼굴은 “단단하게 마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게다가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의지의 상징인 “손발”이 있다. “거대한 정의”는 신의 말

---

41) 김현승, 『김현승 전집1』, S. 159f.

씀을 의미하는데, 시적 화자는 바로 이에 대해 “가느다란 창끝으로” 대항하려 한다. 그러한 대결의 결과는 고독뿐이다. 그 고독을 김현승은 “結晶된 빛의 눈물”이라고 표현한다. 그의 고독은 “이슬과 사랑에도 녹슬지 않는 견고한 칼날”이 된다.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하기에 그의 고독의 속성은 단단하고, 마르고, 어느 햇볕에도 기대지 않고, 그 무엇에도 휘지 않는다. 한 마디로 그의 고독은 견고하다. 견고함은 곧 그의 마음가짐의 단호한 반영이다. 그의 고독은 단순한 관념의 반영이 아니라 치열한 내적 갈등과 고뇌의 산물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독을 수호하고 고독 속에서 예술 행위를 하려 한 릴케의 굳은 마음가짐은 다음 편지글에 잘 나타나 있다.

나의 삶이 수도원의 집단과 격리 속에서 사는 수도사의 삶이야 아니겠지만, 내 스스로 점점 하나의 수도원으로 커 나아가, 벽으로 둘러싸인 채 이 세상 한 가운데 그렇게 서 있을 모습을 당신은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sup>42)</sup>

수도원은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만 시인은 진정한 예술이 가능하다고 본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격리를 꿈꾸는 그는 자신이 하나의 수도원으로 커 나가기를 바란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공간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진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고독을 단단한 물질에 비유하여 견고성의 공간으로 승화시킨 점에서 릴케와 김현승은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견고한 이미지의 고독의 거푸집을 만들어 그 안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은 열망의 반영인 것이다.

42) R. M. Rilke : Briefe aus den Jahren 1906 bis 1907. Hrsg. von Ruth Sieber-Rilke und Carl Sieber, Leipzig 1930, S. 117.

### III. 맺는 말

김현승은 릴케로부터 예술과 삶에 대한 진지성을 배웠다고 말한다. 김현승이 릴케의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주로 『기도시집』과 『형상시집』, 그리고 고독과 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것이다. 특히 시적 자세의 문제는 『기도시집』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인다. 김현승의 자세가 절대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聖畫를 그리고 시를 짓는 『기도시집』의 시적 화자인 러시아 수도사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시를 짓는다는 점에서 김현승은 릴케를 그대로 닮고 있다. 특히 가을에의 집착은 고독과 방랑과 연관해서 릴케의 「가을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김현승이 자기만의 세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특유의 고독에 대한 집착의 결과이다. 그의 문학적 성과는 견고한 성질의 사물과 언어를 시적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고독을 순수한 테마로 숙성시킨 데서 찾아진다. 시 「절대고독」과 「견고한 고독」에서 보듯, 고독을 대체로 예술 창조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한 릴케와 달리 고독을 신을 대신한 영원성으로까지 숭배하여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의 고독은 독창적인 면을 보인다.

반면, 언어구사 면에 있어서 김현승의 “절대고독”의 시는 언어를 정확하게 조탁하여 관념을 언어의 외피로 씌워 보여준다는 점에서 릴케가 『신시집』에서 선보인 사물시에 가깝다. 김현승이 고독을 테마로 한 시를 쓰면서 화려함이나 파토스를 버리고 “건조미”<sup>43)</sup>에서 매력을 느낀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도 김현승과 릴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김현승의 시에서 발견되는 약간은 학술적인 냄새가 나면서 시적 아름다움을 추구하

43) 김현승, 「나의 고독과 나의 시」. In :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S. 185.

는 문체에 있다.

결론적으로, 김현승의 타고난 기질이 릴케의 시적 정서와 많은 점에서 비슷한 점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시에서 “마음”은 주변의 변화에 반응하며 나뭇의 내면의 풍경을 구성한다. 이때 “언어”는 “마음”의 무늬를 빚는 그릇이다. “마음”은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에너지원이자 외부의 사물이나 표상이 내면으로 유입되어 재생산되는 변형의 공간으로서 시인의 삶의 틀을 이루는 것이다. 시인의 “마음”은 바람처럼 사물을 스쳐지나가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 원천은 물론 그 무언가를 향한 식을 줄 모르는 그리움이다. 그것이 김현승의 경우엔 “신”이 되기도 하고 “고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